



# 책의 맛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소식지  
제6호 2021년 5월

발행처: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50-23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 031-8063-1881

## 책이 없는 방은 영혼없는 몸과 같다

A room without books is like a body without a soul

- 마르쿠스 툴리우스 시세로

안녕하세요? 배곧해솔중학교 도서관입니다. 5월 소식지의 주제는 '도서관과 가정의 달'입니다.

### ◆ 도서관 이용 안내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들이 3주에 1번 등교함에 따라 대출 기간을 늘렸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8:40 ~ 16:40
- 대출 및 반납  
3권 30일

### ◆ 도서부와 가정의 달

11112 박유진

가정의 달을 맞아 기분도, 날씨도 점점 화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해솔중의 도서부는 5월!!

가정의 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그 계획과 가정의 달과 도서관, 책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부는 매월마다 다양한 행사들과 활동들을 기획, 실행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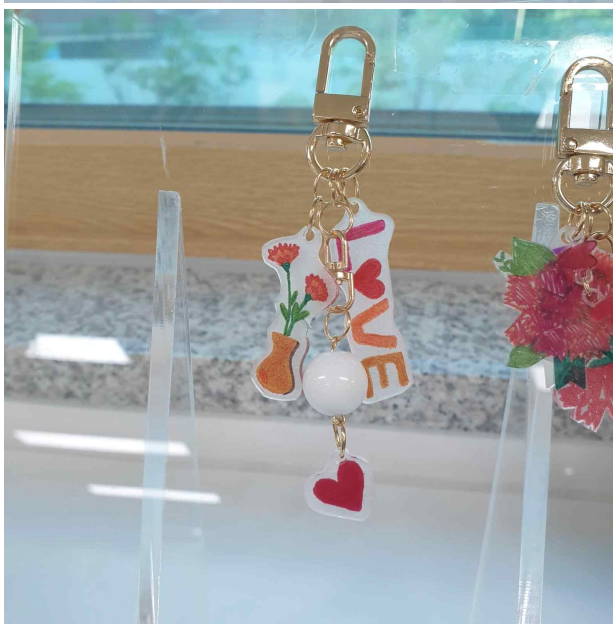
도서관에서는 5월 12일 '키링 만들기' 행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행사도 진행 했었는데요! 예로는 틀린 그림 찾기, 삼행시 짓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좋은 인식 또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가정의 달" 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에는 말 그대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날이 많다고 해서 가정의 달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가정의 달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다 같이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도서관과 가정의 달"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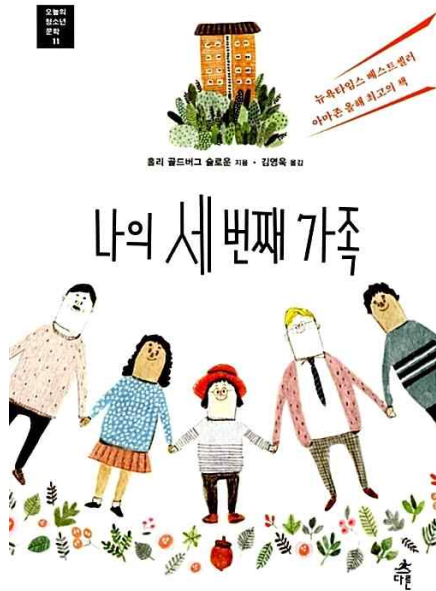
가정의 달 키링 만들기 사진은 다음 페이지에!

### ◆ 6월 전시 홍보



◆ 감사 키링 만들기 결과





## 나의 세 번째 가족

21512 손채원

지은이      홀리 골드버그 슬론  
옮긴이      김영옥  
출판사      다른  
출판 연도      2014

### 줄거리

주인공 아이큐 160 소녀인 입양아다. 어느 날 새로 들어갈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지역 최초의 만점자가 된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심리상담 담당선생님인 듀크선생님은 그다지 상담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심리상담을 다니는 중 자신 보다 두 살 많은 '마이'언니와 친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두 번째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녀는 절망에 빠진다. '마이'언니는 그녀를 위해 자신의 어머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오랜친구 사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그녀의 후견인으로 추천한다. 그 당시 그녀의 부모님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었다. 하지만 '마이'언니의 집은 그녀의 임시후견인이 되기에는 너무 가난했다. 그 이후로 '듀크'선생님의 집을 빌려 그녀와 같이 임시로 살게된다. 그 과정에서 활기를 되찾는다. 또한, 그녀의 주변 인물들도 그런 그녀를 보고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의 후견인을 결정하는 재판이 시작되고 그녀는 다시 주저앉는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과 달리 그녀의 후견인을 자초한 인물은 '마이'언니의 어머니였고, 사실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지금까지 모아온 돈이 있었고, 그 돈으로 '듀크'선생님의 집을 산 것이다. 그리고 그녀와 주변 인물들은 행복한 결과를 맞이했다.

### 인상 깊었던 부분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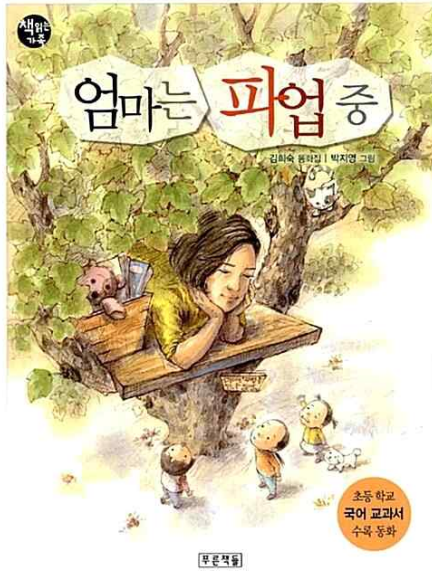
나는 지금에서야 내 자신이 그들 모두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편이 나왔다. 이거야말로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배운 여러 비밀중 하나였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드라마에 주목하지 않게 된다. 이 부분이 인상깊었던 이유는 나도 내 자신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추천 이유

주인공이 입양아라는 설정과 주인공의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간뒤 '마이'와 '마이'어머니, 듀크 선생님과 같이 지내면 점점 그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고 가정의 날인 5월에 알맞은 추천 작품이다.



## 가정의 달과 책



### 엄마는 파업중

30311 노윤서

지은이	홀김희숙
그림	박지영
출판사	푸른책들
출판 연도	2006

#### 줄거리

우리가족은 아빠, 엄마, 나, 예지, 수지 이렇게 5식구이다. 집 뒤에는 커다란 버즘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위이 널빤지를 올려놓고 나와 수지, 예지 만의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나'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 수지와 예지는 버즘나무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즘나무 위에서는 엄마가 나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팻말에는 '엄마는 파업중 요리,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을 모두 안함'이라는 글자가 써있었다. 이런 팻말을 보자 나는 동생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하고, 아빠한테는 엄마가 집안일 파업을 하셨다고 알리고 아빠는 일찍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전화를 끊었다. 청소를 끝난 동생들은 휴장난을 하고 있었고, 나는 이런 동생들을 화장실로 들여보낸 다음에 목욕을 시켰다.

저녁이 되자 나는 엄마한테 용돈으로 무엇을 사오면 되냐고 여쭙어보았지만, 엄마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이때 아빠가 빨리 오셔서 된장찌개를 하셨으나 맛은 짜고 시큼한 맛이였다. 아빠와 우리는 협상을 했고, 엄마한테 이 협상안을 읊었다. 이 협상안을 들은 엄마는 지켜주기만 한다면 좋은 조건이라고 하시면서 파업을 끝내셨다.

#### 인상 깊었던 부분과 이유

이 책을 읽고 나는 내가 학교를 가면 엄마는 뭘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근데 이 책을 읽고서 느꼈던 생각이 나도 학교를 가면 나도 바쁜데, 엄마는 집에서 청소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하시는 일이 나보다 2배 3배 더 많으시겠구나, 내가 학교 갔을 때 엄마는 쉬지 않고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요리나 빨래는 못 해도 적어도 내가 쓴 물건, 내가 사용한 공간만큼은 깨끗하게 정리정돈해야 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었다

다음 도서관 소식지도 기대해주세요~!